

최근 일본대학입학시험의 한국사 관련 문항 고찰

김보림 _ 충북대학교 역사교육과

목 차

- I. 서론
- II. 대학입학센터시험 출제의 절차와 대학입시 개혁
- III. 최근 3년간 대학입학센터시험에서 한국사 관련 문항 분석
- IV. 결론

국문초록

아베 정권이 들어선 이후 일본은 고등학교와 대학 교육의 접속이 중요하다는 '고대접속개혁' 실시와 이 '접속'을 위한 새로운 대학입시제도를 구상하고 있다. 본고는 새로운 시험체제 속에서 지금까지 한일관계의 지평을 여는 보다 질 좋은 한국사 관련 문항들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고자 일본의 최근 3개년간(2016~2018) 대학입시센터의 대학입학시험(센터시험)에서 한국사 관련 문항을 분석해 보았다. 2005년 센터시험의 세계사A와 세계사B 과목에서는 한국사 관련 문항이 하나도 제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10여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센터시험을 분석한 결과 한국사 관련 문항들의 양과 질은 많은 변화를 보였다. 문항수의 확대 및 독립된 한국사 문항의 등장이나 답지에 옳은 답으로서 비중있게 한국사 관련 사실을 다루는 등 질적인 면에서도 나아지고 있다. 내용적인 면에서도 통사적으로 한국사 자체 내용이 출제가 되고 있는 것도 특징적이다. 그러나 근현대사에서 식민지 통치의 억압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단순 사실을 나열하는 형식의 문제 출제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대학입시센터, 대학센터시험, 고대접속개혁, 한국사 관련 문항, 세계사A

.....

I . 서론

역사교육에서 한일 관계사는 풀어야 할 많은 쟁점을 가지고 있다. 사실 일본이 우리의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는 학습지도요령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표기하라고 하고, 교과서에서 그렇게 서술하고 있다하더라도, 실제 교수-학습의 장인 교실에서 의식을 가진 역사 교사가 교육 내용을 재구성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지식을 생성하게 하는 역사 수업을 진행하여 효과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면, 학습지도요령이나 교과서의 수정 요구와 함께 이러한 수업 방식의 진전을 위해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협력 관계 또한 추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론 등에 대한 고민이 수업의 과정 속에 있다면 역사교육의 최종 종착지라 할 수 있는 ‘평가’의 단계에서 한일 양국 학생의 역사 인식은 다시 한번 검토될 것이고 ‘무엇을 묻는가’하는 내용의 타당성의 문제는 결국 역사 교육의 목표와 직결되어 그 어떤 단계보다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일 관계에서 역사교육의 문제는 교육과정과 교과서 문제, 수업의 방법론적인 문제에만 함몰되어 일본인들이 한일관계에 대해 ‘무엇을 묻는가’에 대한 문제는 관심을 두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무엇을 묻는가’의 문제는 그 교과 또는 과목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르쳤는가’ 등을 묻는 반성적 사고의 문제이다. 이것

이 한 교과 또는 과목에서 더 나아가 한 국가의 대학 시험 문항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 문항은 다시 말해 한 국가가 무엇을 목표로, 무엇을 내용으로 가르쳤는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더구나 일본처럼 1년에 56만~58만¹⁾에 가까운 수험생들이 치루는 대학 입학 시험일 때는 그 교과 내용의 중요성과 타당도를 문항을 통해 미루어 알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최근 3개년간 일본 대학입학시험인 대학센터시험(이하 센터시험)의 역사(일본사와 세계사) 문항 중 한국사와 관련된 문항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베 집권 이후 일본군 위안부 보상 문제 등 참여한 한일 관계와 달리 센터시험에서의 한국사 문항은 이전과 달리 보다 많아지고 구체화되었다. 내용적인 면에서도 아쉬운 점들이 있기는 하나 교류사 중심의 문항이 많아지고 식민지 경험 또한 좀 더 ‘객관화’시킨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 것이 보인다. 이는 마치 한국의 아이돌 그룹인 방탄소년단 중 한 멤버의 ‘광복절’ 티셔츠가 문제가 되어 일본 우익들의 반발로 일본의 쇼프로그램에서 섭외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노래가 일본 음원 차트에서 1위를 지속하고 콘서트의 표가 매진되는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된다.²⁾ 아베를 비롯한 일본의 우익은 한일 관계사의 쟁점들에 쉽게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반면 일본 자체의 역사 교육계는 마치 자정 작업을 거친 듯 한국사에 대한 관심을 당당히 입시 문항의 증대와 용어의 ‘객관화’로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는 문항 내용의 양적 확대에 비해 내용의 질적

1) 일본의 경우 2018년에 582,671명, 2017년에 575,967명, 2016년에 563,768명이었다. (獨立行政法人大學入試センター, 「平成29事業年度業務実績報告書」, 平成30年6月, 9쪽)

2) “BTS performance in Japan canceled amid anger over atomic bomb shirt”, *CNN* 2018. 11. 10; 「방탄소년단 日 방송 취소 파장…외신 “역사적 배경있어」, 『서울신문』 2018. 11. 10.

‘객관화’가 부족한 최근 일본의 대입시험 한국사 관련 문항을 좀더 심도있게 살펴볼 것이다.

최근 문부과학성의 발표에 따르면 현행 객관식 체제의 센터시험은 2020년 시험을 기점으로 사라질 예정이다. 센터시험은 ‘대학입학공통테스트’라는 이름으로 기술식 체제가 도입되어 새롭게 바뀐다. 최근의 일본 대학입시 시험에 대한 연구는 일본 입시 제도³⁾와 새로운 시험 체제에 대한 연구가 있고⁴⁾, 일반사회, 지리, 물리 등 각 교과마다 시험 문항을 분석한 연구도 있다.⁵⁾ 한국의 수학능력평가시험(수능)과 센터시험을 비교 분석한 논문도 있다.⁶⁾ 한국사 관련 역사 문항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분석한 논문이 있는데⁷⁾, 기존의 연구성과가 거의 모두 10여 년 전 분석 논문이기 때문에 그 동안 최근의 변화 상황을 이해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이러한 선행연구를 근간으로 하여 센터시험과 최근 대학시험 개혁에 대해 살펴보고 최근 3개년간 역사 문항에서 한국사 관련 문항을 검토해 보도록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센터시험은 1월 셋째주

-
- 3) 오현석, 「일본 AO입시제도에 관한 소론」, 『한국일본교육학연구』 제17권 1호, 2012; 김미란, 「일본의 대학 자율화와 대학입시—도쿄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일본교육학연구』 제13권 2호, 2009.
 - 4) 김용, 「일본 대학입시 개혁과 IB 도입 정책의 동향과 시사점」, 『교육비평』 제41권, 2018; 김용·엄아름, 「일본 대학입시정책의 변화 동향과 시사점」, 『比較教育研究』 제28권 3호, 2018.
 - 5) 이간용, 「일본의 지리 평가 특성 분석—대학입시센터시험을 중심으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제16권 3호, 2008; 이정우, 강대현, 「일본 대학입시센터시험 문항 분석 연구 : 2009년 ‘현대사회’, ‘정치·경제’ 문항을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제50권 2집, 2011; 최혁준, 「일본 대학입시센터시험 ‘물리 I’ 문항 특성」, 『敎員敎育』 제26권 1호, 2010.
 - 6) 김현경,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화학 문항의 질 제고를 위한 일본 대학입시센터 시험 문항 분석」, 『대한화학회지』 제54권 6호, 2010; 김보림, 「최근 한국과 일본의 대학입학시험 비교 연구」, 『일본문화연구』 제52권, 2014; 백순근, 「한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일본의 대학입시센터시험에 대한 비교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제2권 1호, 2001.
 - 7) 김보림, 「최근 일본 대학입시에서의 역사 평가와 한국사 관련 문항 고찰」, 『일본문화연구』 제24권, 2007.

가 되는 토요일과 일요일 양일에 걸쳐 치루게 되어 최근 3개년이라 함은 현재(2018년 10월)를 기점으로 2016년 1월~2018년 1월(2016, 2017, 2018) 3년에 걸친 시험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센터시험을 주관하는 대학입시센터의 시험문제평가위원회 최종 보고서에서 나타난 문항 검토 부분을 소개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의 가운데 제 사회적, 역사적 배경과 학문적 진보 상황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그 논의 자체가 상당한 작업을 또한 요하므로 본 연구는 우선 문항 분석에 중점적으로 치중하여 차후 논의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II . 대학입학센터시험 출제의 절차와 대학입시 개혁

센터시험은 “대학에 입학할 지원하는 자의 고등학교단계에서의 기초적인 학습 달성 정도를 판정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각 대학이 각각의 판단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에 의해 대학교육을 받기에 적절한 능력, 의욕, 적정성을 다면적, 종합적으로 평가, 판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입학지원자에 대해 대학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는 시험이다.⁸⁾

매년 공통의 시험문제 작성 기준, 작성상의 유의사항 등을 정리한 ‘시험문제작성요령’을 정리하고 시험문제를 작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센터시험 문제 데이터베이스와 교과서 데이터베이스 등을 시험 출제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시험문제에 관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시험

8) 獨立行政法人大學入試センター, 「センター試験の仕組み・運営」, https://www.dnc.ac.jp/center/shiken_gaiyou/index.html (검색일: 2018. 10. 31)

문제 작성 위원들의 이름을 퇴임 1년 후까지 비밀로 하고, 시험문제작성위원 전원에게 대해 상시 시험문제의 비밀 유지에 대해 주지하며, 이들 소유의 컴퓨터 등을 시험 문제 작성 영역 내에 가지고 들어오지 않도록 사물함을 설치하고 있다. 또한 시험 문제에 관한 데이터 관리를 강력하게 하기 위해 전용 서버에 의한 부회용 전자계산기 시스템을 사용함과 동시에 전용 서버실의 생체 인증에 의한 관리를 행하고 있다. 시험문제 작성은 많은 위원에 의해 충분한 시간을 걸쳐서 작성됨과 함께 교과과목 제1위원회 부회장회의에서 문제 작성 및 점검의 때에 특히 유의할 사항을 설명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점검, 조회하도록 한다. 2018년의 경우 교과과목 제1위원회는 국공사립대학 등의 교원으로 22부회 425인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부회는 9~26인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시험용 6교과 30과목의 시험 문제를 과거의 실시 결과에 근거하여 출제 범위, 출제 내용, 기술, 난이도 등에 대해 충분히 토의하고 약 2년간에 걸쳐 작성한다. 또한 일부의 교과, 과목에서는 출제 내용의 중요성과 복잡함과 다른 시험문제에 다른 과목의 해답이 기술되어 있지 않도록 각 교과 및 각 과목의 조정회의를 년 7회 개최하였다.

교과과목 제2위원회의 위원은 교과과목 제1위원회 경험자 또는 학직 경험자 등이며 19부회 147인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문제의 작성, 내용, 해답 및 용어를 점검한다. 부회별로 연간 3~5회 개최된다. 교과과목 제3위원회의 위원은 국공사립대학 등의 교원 및 학직 경험자 29인이다. 이들은 문제의 형식, 표현 및 각 과목간의 정합성, 중복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연간 6회 개최되었다. 마지막으로 점검협력자는 고등학교 등 관계자 53인으로 문제의 난이도 및 출제범위에 대해 고등학교교육의 입장에서 점검하였다.⁹⁾

독립행정법인대학입시센터에서는 대학입시센터시험의 문제평가를

9) 獨立行政法人大學入試センター(平成30年6月), 4~6쪽.

수행하기 위해 시험문제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각 도도부현 교육위원회 등으로부터 추천된 고등학교 교원으로 이루어진 외부평가분과회와 시험문제를 작성한 교과교과목 제1위원회 위원으로부터 구성된 자기점검, 평가 분과회 등 두 개의 분과회로 구성되어 있다. 시험 종료 후 대학입시 센터 시험에서 출제된 시험문제에 대해 우선 외부평가분과회가 평가를 행하고 그것과 따로 각 시험과목에 연관이 깊은 관계교육연구단체¹⁰⁾로부터도 의견 및 평가를 받고 있다.¹¹⁾

한편, 일본에서는 최근 이러한 센터시험을 전면 개편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 문부과학성의 ‘교육재생실행회의’는 “센터시험이 1점으로 합격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을 조장하며, 시험 결과가 지원 대학 결정과 직결되어 수험생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며, 6개 교과 29개 과목의 출제와 55만여 명의 동시 수험에 대응하는 일에 상당한 부담이 더해져 한계에 이르렀다”고 센터시험 폐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¹²⁾ 이는 고등학교교육개혁과 대학교육개혁을 일관되게 변혁하고 이를 연결시키는 대학입학자 선고개혁을 함께 시도하려는 ‘고대접속개혁(高大接續改革)’이다. 이를 위해 2018년 3월 문부과학성은 새로운 학습지도요령을 발표하였다. 이 학습지도요령에 의해 고등학교는 2022년부터 학교급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학생들의 자질과 능력을 한층 확실하게 육성하고 사회에 열린 교육과정을 중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현행 학습지도요령의 구성과 교육내용을 유지한 채 지식의 이해의 질을 더욱 높이고 확실한 학력을 육성하는데 기본 생각이 있다고 하고 있다. 지식의 이해의 질을 높

10) 역사와 관련된 연구단체는 전국역사교육연구협의회(全國歴史教育研究協議會)이다. (獨立行政法人大學入試センター(平成30年6月), 7쪽.)

11) 獨立行政法人大學入試センター 試験問題評價委員會, 「平成28年度大學センター試験試験問題評價委員會報告書」, 2016. 3, 1쪽.

12) 김용, 엄아름(2018), 199쪽.

이는 것은 주체적으로, 대화적으로 깊이 배우는 수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다. 이에 지리역사과에서는 역사종합, 지리종합이 신설되는 등 교과 및 과목 구성에 변화가 있었다. 지리역사에서는 지리종합(2단위), 지리탐구(3단위), 역사종합(2단위), 일본사탐구(3단위), 세계사탐구(3단위)로 구성하여 기존의 일본사 A, B와 세계사 A, B등의 구분을 없애고 지리종합과 역사종합 과목을 필수이수과목으로 하였다.¹³⁾ 한편, 고대접속개혁에서는 학력의 3요소를 사고력, 판단력, 표현력으로 중시하고 ‘대학입학공통테스트’의 실시 방침을 2017년 7월에 결정하였다. 특히 국어와 수학 등에는 기술식 문제를 도입하고 영어는 듣고, 읽고, 쓰고, 말하기라는 4가지의 기능을 적절하게 평가하기 위해 민간 등이 실시하는 자격 및 점정시험을 활용한다는 획기적인 방식을 채택하였다.¹⁴⁾

Ⅲ. 최근 3년간 대학입학센터시험에서 한국사 관련 문항 분석

1. 학습지도요령과 대학입학센터시험에서의 지리역사과

센터시험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대 2과목은 지리역사(일본사A, 일본사B, 세계사A, 세계사B, 지리A, 지리B)와 공민(현대사회, 윤리, 정치경제, 윤리 및 정치경제)의 10과목 중에서도이다. 단 일본사A와 일본사B같이 동일한 명칭을 포함하는 과목을 조합하여 2과목을 선택할 수는 없다.¹⁵⁾ 현

13) 文部科學省, 「高等學校學習指導要領の改定のポイント」, 2018. 3, 1·5쪽.

14) 高大接續システム改革會議, 「高大接續システム改革會議最終報告」, 平成28年 3月 31日, 65-66쪽.

15) 獨立行政法人大學入試センター, 「平成30年大學入試センター試験實施結果の概要」, 2018. 2, 1, 10쪽.

행 교육과정상에서는 세계사 A(2단위)와 세계사 B(4단위) 중 한 과목을 반드시 필수과목으로 이수하고, 일본사 A(2단위), 일본사 B(4단위), 지리 A(2단위), 지리 B(4단위) 중 한과목을 반드시 선택하여 이수하도록 하였다.¹⁶⁾ 한편 현행 학습지도요령의 각 지리역사교과의 과목 목표는 아래와 같다.

〈표 1〉 현행 지리역사과 각 과목의 목표

과목명	목표
일본사A	우리 나라의 근현대 역사의 전개를 제 자료에 근거하여 지리적 조건과 세계의 역사와 관련지으며 현대의 제 문제에 착목하여 고찰시키는 것에 의해 역사적 사고력을 기르고 국제사회에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生きる) 일본국민으로서의 자각과 자질을 소양한다. ¹⁷⁾
일본사B	우리 국가의 역사 전개를 제 자료를 근간으로 지리적 조건과 세계의 역사와 관련지어 종합적으로 고찰시켜 우리 국가의 전통과 문화의 특색에 대해서 인식을 깊게 시키는 것에 의해 역사적 사고력을 배양하고 국제사회에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일본국민으로서의 자각과 자질을 소양한다. ¹⁸⁾
세계사A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의 역사를 제 자료에 근간하여 지리적 조건과 일본의 역사와 관련지으면서 이해시켜 현대의 제문제를 역사적 관점에서 고찰시키는 것에 의해 역사적 사고력을 배양하고 국제사회에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일본국민으로서의 자각과 자질을 소양한다. ¹⁹⁾
세계사B	세계의 역사의 큰 구조와 전개를 제 자료에 근거하여 지리적 조건과 일본의 역사와 관련지으면서 이해시켜 문화의 다양성, 복잡성과 현대세계의 특질을 넓은 시야에서 고찰시키는 것에 의해 역사적 사고력을 배양하고 국제사회에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일본국민으로서의 자각과 자질을 소양한다. ²⁰⁾

상기와 같은 목표를 근간으로 이의 취지에 적합한 센터시험 문항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16) 文部科學省(2018. 3), 「高等學校の各學科に共通する教科, 科目等及び標準單位數(現行)」, 5쪽.

17) 文部科學省, 「高等學校學習指導要領」, 第2節 地理歴史, 2009, 23쪽.

18) 위의 글, 24쪽.

19) 위의 글, 18쪽.

20) 위의 글, 20쪽.

최근 3개년간 각 교과 및 과목의 지원자 수, 성적 분포를 나타내면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최근 3년간 대학입시센터시험 수험자수, 평균점의 추이²¹⁾

교과, 과목명	연도	2016		2017		2018	
		수험자수	평균점	수험자수	평균점	수험자수	평균점
지리역사	세계사A	1,449	42.07	1,329	42.83	1,186	39.58
	세계사B	84,131	67.25	87,564	65.44	92,753	67.97
	일본사A	2,472	40.81	2,559	37.47	2,746	46.19
	일본사B	160,830	65.55	167,514	59.29	170,673	62.19
	지리A	1,805	52.14	1,901	57.08	2,315	50.03
	지리B	147,929	60.10	150,723	62.34	147,026	67.99

<표 1>에서 살펴보듯이 가장 많은 수험자가 선택한 과목은 일본사 B로 3개년간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평균점의 경우 2016년 세계사B → 일본사B → 지리B 순이고, 2017년 세계사B → 지리B → 일본사B이며 2018년에는 지리B → 세계사B → 일본사B로 대체로 쉬운 세계사B나 지리B보다 더 많은 학생이 일본 통사라 할 수 있는 일본사B를 선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세계사A와 세계사B는 필수 과목이지만 일본사A와 일본사B는 교육 과정에서 선택과목이다. 하지만 학교 교육과정에서 통사인 B과목을 근현 대사 위주의 A과목보다 많이 선택하다보니 학생들이 일본사B를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다.

2. 대학입학센터시험의 일본사 과목에서 한국사 관련 문항의 특징

대부분의 문항은 모두 4지선다형 객관식이며 각 과목마다 제4~5문정도로 구성되고 각 '문'마다 A~C까지의 서로 다른 지문이 있고 각 지문마다 2~3개 문항(문1, 문2의 형식)이 포함된다.

21) 獨立行政法人大學入試センター(2018. 2.1), 10쪽.

한편 2016년부터 한국사 관련 과목의 문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도록 하자. 먼저 일본사 A와 일본사 B 문항 중 한국사 관련 공통 문항이다.

문 4. 1936년의 국제올림픽 위원회(IOC) 총회에서 동경은 헬싱키를 무찌르고 1940년 대회의 개최도시로 선정되었다. 이 총회의 뒤를 이어 개막된 베를린 대회에서는 ①식민지 출신자도 일본선수단의 일원으로서 출장하여 조선출신의 마라톤 선수 손기정이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이 때의 라디오 실황방송은 '일본 마라톤의 4만세기에 걸친 소원이 달성되었습니다.'라고 전달하였다. 이 대회는 또한 나치 독일의 국위선양과 대외선전의 무대가 되어 '민족의 제전'이라고 이름 붙여진 기록영화도 제작되었다. 매스 미디어의 발달은 내쇼널리즘을 고양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하락>

문 4. 하부선④에 관련하여 일본의 조선지배에 관해 서술한 문장으로서 옳지 않은 것을 다음의 ①~④ 중에서 하나 고르시오.

- ① 초대 조선총독에는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内正毅)가 취임하였다.
- ② 조선총독부는 방곡령을 내려 일본 내지로의 미곡이출을 금지하였다.
- ③ 3·1독립운동을 진압한 후 조선 총독부는 헌병경찰제도를 폐지하였다.
- ④ 일중전쟁기에는 신사참배와 일본어의 사용이 강제되었다.

문제작성위원회의 보고서에서는 일본사 A과목의 목표인 '지리적 조건과 세계의 역사와 관련 짓는다'에 적합하고 역사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문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고 하였다. 일본사 A와 일본사 B의 공통문항인 상기 문항은 정치, 외교, 사회경제, 문화, 사료와 지도 등의 분류 중 '외교'를 묻는 문항에 속하고 난이도는 어려우나 아주 어렵지는 않은 정도의 수준으로 보고 있다.²²⁾ 난이도는 2015년 3.29라는 지수가 2016년에 3.53으로

22) 獨立行政法人大學入試センター 試験問題評價委員會(2016. 3), 43쪽.

더 어려워졌다. 일본사B와의 공통 문제의 난이도 지수가 2015년 3.5인데 반해 2016년 3.83이고, 일본사 A만의 문제 난이도 지수가 작년 3.18 2016년 3.35인 것으로 보았을 때, 공통문제가 어려워짐으로 인해 전체의 평균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보여진다.²³⁾ 또한 방곡령과 3·1독립운동 후의 통치정책 등 구체적인 지식에 대해 묻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²⁴⁾ ‘지리적 조건과 세계의 역사와 관련 지어’, ‘역사적 사고력’을 배양한다고 하는 학습지도요령의 목표를 의식한 문항이지만 질문은 단순한 내용을 묻는 질문으로 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²⁵⁾ 상기 문항은 최근 많이 보여지는 인물사를 통한 출제가 아닌, 올림픽을 소재로 하여 출제하여 근현대사를 다면적, 다각적으로 고찰하는 좋은 문제였다고 평가한다. 2018년에 리오데자이로 대회, 4년 후에 동경 대회를 준비하면서 올림픽에 대한 관심의 고양을 의식한 출제로 보여진다. 시사문제를 취급한 이 같은 출제는 수업에 대해 ‘역사적 관점과 생각을 습관화시키기’ 위해 ‘적절한 주제를 설정한다’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시키는 것이었다.²⁶⁾

정답은 ②번인데 방곡령과 같은 상세한 식민지 착취 구조와 관련된 사실을 묻는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답지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손기정 선수의 나라 잃은 신분으로서 마라톤 금메달 성과의 울분과 동아일보 등의 일장기 삭제 등 베를린 올림픽에 대해 다른 관점에서도 물어볼 수 있는 문제일 것이다. 또한 결과 보고서에서도 차기 동경올림픽 개최 등만 언급한 채 본 문항을 시사적인 문항으로만 파악하고 있는 점은 아쉬운 점이다.

다음으로 일본사 B에만 나타나 있는 아래의 문항을 살펴보자.

23) 위의 글, 44~45쪽.

24) 위의 글, 45쪽.

25) 위의 글, 46쪽.

26) 위의 글, 50쪽.

제2문 문4. 하부선 ㉔에 관련하여 나라시대의 귀족들이 내일(來日)한 신라의 사절단으로부터 구입하고자 했던 품목을 쓴 다음의 사료(현대어역)에 관하여 서술한 아래의 문 a~d에 대해 바른 것만을 고른 것을 아래의 ①~④중에서 고르시오.

(사료)

합쳐서 23종

...(중략)...

쿤로쿠(薰陸)(주1) 15근(주2)

인삼(주3) 4근

카리로쿠(呵梨勒)(주4) 200 과(주5)

...(중략)...

준비한 대가는 면(주6) 500근, 실 30근

이상, 구입하고 싶은 신라물건과 준비한 대가 등은 상기대로이다. 잘 부탁드립니다.

천평승보(天平勝寶) 4(752)년 6월 23일

(주1) 인도 등 원산의 향료 (주2) 근: 무게의 단위 (주3) 조선반도원산의 약재 (주4) 동남아시아 원산의 약재 (주5) 개수를 나타내는 단위 (주6) 누에로부터 만들어진 면

- a. 신라는 향료의 중계무역을 행하였다.
- b. 신라와 이 교역의 대가는 전화로 하였다.
- c. 이 문서가 작성된 즈음, 조선반도에서는 신라, 고구려, 백제가 분립하고 있었다.
- d. 이 문서가 작성된 즈음, 동대사에서는 대불의 개안공양(開眼供養)의 의식이 행해졌다.

① a, c ② a, d ③b, c ④ b,d

일본사 B는 ‘각 시대의 특징 및 역사적 사상의 추이, 변화, 혹은 배경을 이해하기 쉽도록 문제가 출제되도록 하고 사료는 교과서에 게재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고 하고 있다. 기본적인 지식의 이해와 역사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데에 피상적인 문제가 많았다. 상기 문항은 정치, 외교, 사회경제, 문화, 사료와 지도 등의 분류 중 ‘사료’를 묻는 문항에 속한다.²⁷⁾ 정답은 ②번으로 사료로 볼 때 교역의 대가가 전화가 아닌 물품이며 신라 통일(676년)이기 때문에 c의 설명도 옳지 않다. 동대사 대불의 개안공양, 즉 대불이 만들어졌을 때 그것을 축하하는 의식이 행해진 것은 나라시기 인 752년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최근 일본사 문항의 특징으로 고대 교류 관계사에 대한 문항이 많아진 것인데, 이 문항이 대표적이다. 다만 많은 문화를 전수해준 신라와의 관계를 단지 중계무역상 정도로 대등하게 서술한 사료를 가지고 온 것은 의도가 있어 보인다.

다음으로 2017년도 일본사 A과목의 문항에 나타난 한국사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아래의 문항은 일본사 B과목과 공통 문항으로 출제되었다.

문3. 하선부 ⑥에 관련하여 근대 일본의 요인 살해 사건에 대해 서술된 다음의 문장 X, Y와 그것에 해당하는 어구 a-d와의 조합 중 바른 것을 ①~④에서 하나 고르시오.(문항 19)

X 초대 한국통감을 역임한 이 인물은 하얼빈 역에서 안중근에게 살해당하였다.

...(하략)...

여기에서 주목할 서술은 ‘안중근에게 살해당하였다’고 하는 부분이다.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주로 ‘안중근은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에서 처단하였다.’²⁸⁾라고 하거나 ‘안중근은 만주 하얼빈에서 이

27) 獨立行政法人大學入試センター 試験問題評價委員會(2016. 3), 48쪽.

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였다.’²⁹⁾ 등으로 서술하고 있다. 비교적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듯 보이나 ‘살해당하였다(殺された)’라는 표현은 자칫 안중근이 ‘암살자’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작성위원회에서는 난이도가 표준적인 문제로서 이토 히로부미를 쉽게 찾아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였다.³⁰⁾ 또한 근대 일본의 요인 살해사건에 대해 기본적인 내용을 묻는 것으로 정답율이 높았다고 하고 있다.³¹⁾ 전국역사교육연구협의회의 평가 보고서에는 본 문항이 ‘교과서를 통해서도 쉽게 풀 수 있는 인물과 사건 연관 문제’라고 하고 있다.

2018년도의 일본사 A 문항에서도 안중근을 소재로 답지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제1차 세계 대전 후의 민족운동 전개에 대한 바른 것을 고르는 문항인데 답지로서 ‘한국의 민족운동가에 의해 이토 히로부미가 살해되었다’로 옳은 답지로 제시되었다. 이 문항은 일본사 B 문항과 공통 문항으로 출제되었다. 2017년도 일본사 A 문항과 일본사 B 문항과 공통 문항에서도 나타나는 ‘초대 한국통감을 역임한 이 인물은 하얼빈 역에서 안중근에게 살해당하였다.’라는 표현이 달라진 것인데, ‘안중근’을 ‘한국의 민족운동가’로 서술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하게 달라진 것이나 여전히 ‘살해되었다’라는 표현의 한계를 극복할 수는 없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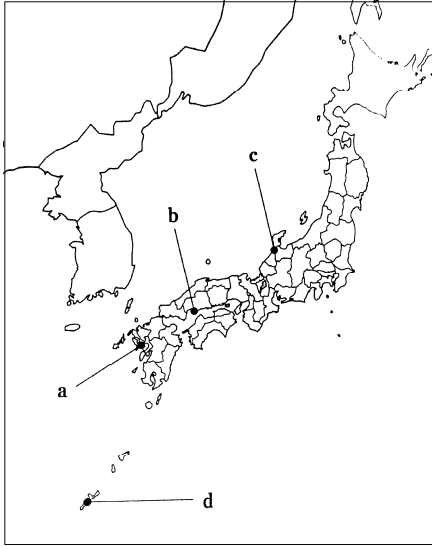
또한 2017년도 일본사 A과목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문항은 제5문항의 B지문 문4에서 지도상의 위치 a~d와 각 사건 즉 제1회 원수폭금지 세계대회가 개최된 곳과 미국 군기지에 반대하는 내란사건이 일어난 곳을 연결시키는 문항인데, 여기에서 제시된 지도는 <그림 1> 같다. <그림 1>에서와 같이 한국과 일본 지도 사이에 독도와 울릉도의 표시가 되어 있지

28) 한철호 외, 고등학교 한국사, 미래엔, 2015, 215쪽.

29) 정재정 외, 고등학교 한국사, 지학사, 2015, 248쪽.

30) 獨立行政法人大學入試センター 試験問題評價委員會, 「平成29年度大學センター試験 試験問題評價委員會報告書」, 2017. 3, 47쪽.

31) 獨立行政法人大學入試センター 試験問題評價委員會(2017. 3), 63쪽.



〈그림 1〉 일본사 A
문제의
독도가 없는 지도

않다.³²⁾

한편, 일본사 B에서만 나타나는 문항은 좀 더 다수 보인다.

제1문 다음 문장은 대학생 S가 T에게 보내는 편지의 일부이다. 이 문장을 읽고 다음에 답하시오.

A. S로부터 T로의 편지

갑작스런 편지로 놀랐지요? 실은 중국으로 가는 배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중략)...예로부터 여러 생각을 가슴에 품고 바다를 건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상상하면서 해상의 안전과 홀로 여행의 성취를 빌고 있습니다...(중략)...일본의 산과 섬은 점차 작아져서 이윽고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녁 무렵 진행 방향에 큰 섬의 그림자가 비추어 선원이 한국의 제주도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고려왕조가 몽골에 복속된 후도 저항을 계속한 (이)의 거점이 된 섬입니다...(하략)...

32) 2018년 일본사 B 제1문 문6에 나오는 같은 지도에도 독도 표시가 없다.

위와 같은 편지글의 지문에 한국의 제주도가 나타나고 한국 관련된 문항은 한 문항으로 1에 들어갈 ‘삼별초’를 찾는 문항이 주어졌다. 평가 위원회 보고서에서는 본 문항이 “고려왕조 멸망 후에도 몽고에 저항한 집단의 명칭을 묻는 기본적 내용이다.”라고³³⁾ 하고 있다. 여기에서 살펴보면 몽고 침입으로 고려 왕조를 멸망한 왕조로 보는 관점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한편 제2문에서는 ‘동아시아의 변동과 깊은 관련을 가지면서 불교과 수용되고 있었다’라는 지문과 함께 5세기부터 8세기까지 문화와 기술에 대한 서술의 정오 여부를 찾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고대에서 동아시아 제국으로부터의 문화와 기술의 수용에 관하여’라는 발문이 되어 있지만 예시는 모두 한반도에 대한 것이므로 굳이 ‘동아시아 제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답지는 아래와 같다.

- a. 5세기에는 발전된 기술을 가진 도래인이 료코(陵戸)에 편성되었다.
- b. 6세기에는 백제에서 도래한 오경박사를 비롯한 제 박사가 유교와 마법 등을 전달하였다.
- c. 7세기에는 백제에서 망명귀족의 영향도 있어 한시문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 d. 8세기에는 견당사는 조난의 위험이 적은 조선반도 연안을 통과하게 되었다.

2016년도 문항이 신라 상인을 중계 무역상으로 하여 하는 거래에 대한 사료를 제시하였다면 2017년 문항에서는 백제 오경박사와 망명 귀족 등의 문화 전래에 대해 보다 본격적으로 출제를 하였고 옳은 서술로 편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본사 B에서는 무로마치 시대의 대일 관계에 대한 질문에서 ‘조선은 일본에 대해 왜구(倭寇)의 근절을 요청하였다.’라는 답

33) 獨立行政法人大學入試センター 試験問題評價委員會(2017. 3), 57쪽.

지를 구성하여 옳은 답으로 하였다. 이전까지 형식적으로 조선에 대한 문제는 완전히 틀린 답인 오답으로 구성하여 상세한 사실을 몰라도 맞을 수 있도록 쉽게 답지를 배치한 것에 비해 2017년 문항에서는 옳은 답으로 구성하여 상세한 지식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평가위원회 보고서에서는 본 문항이 “동아시아 제국으로부터 문화와 기술의 수용에 대해 비교적 평이한 지문으로 구성한 문항.”이라고 설명하고 있다.³⁴⁾

2018학년도 일본사 B 문항에서는 아래와 같은 단독 문항이 두문항 기출되었다.

먼저 야마토 정권(왜)과 조선 반도와의 관계에 관해 서술한 3개의 문장에 대해 시대별로 나열하는 문제로서 “Ⅰ. 신라와 연결한 쓰쿠시노쿠니 노미야코 이와이(筑紫國造磐井)가 대규모의 반란을 일으켰다.(6세기 초) Ⅱ. 조선반도에서의 입장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왜의 오왕이 중국에 조공하였다.(5세기) Ⅲ. 조선반도에 건너간 왜의 병사가 호태왕(광개토왕)이 이끄는 고구려의 군대와 교전하였다.”(4세기) 와 같은 3가지 역사적 사실을 시기순으로 나열하는 문제이다. 평가위원회는 조금 어려운 문제로 난이도를 보았다.³⁵⁾

두 번째 단독 문항은 에도시대의 한일관계에 대해 서술한 문장에서 옳은 문장을 고르는 것이다. 답지는 아래와 같다.

- ① 막부는 1609년 기유약조에 근거하여 일조 무역을 독점하였다.
- ② 조선에서 일본으로 온 사절은 사은사(謝恩使)라고 불렸다.
- ③ 부산에 왜관이 두어져 일조무역의 창구가 되었다.
- ④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조선에서의 국서에서 장군의 표기를 ‘일본국왕’으로 고치게 하였다.

34) 獨立行政法人大學入試センター 試験問題評價委員會(2017. 3), 58쪽.

35) 獨立行政法人大學入試センター 試験問題評價委員會, 「平成30年度大學センター試験 試験問題評價委員會報告書」, 2018. 3, 58쪽.

조선시대 한일 관계사에 대해 묻는 문항으로 조일 교류사의 중요한 사항들을 모두 묻는 중요한 문항이다. 또한 평가위원회에서는 본 문항이 ‘일조관계의 수호과정을 묻는 문항’으로 기능한다고 하고 있다.³⁶⁾

3. 대학입학센터시험의 세계사 과목에서 한국사 관련 문항의 특징

한편 최근 3개년간 세계사 A 문항의 지역 분배는 아래의 <표 3>과 같다.

<표 3> 최근 3개년간 세계사 A 센터시험 문항의 지역 분배³⁷⁾

연도, 출제수 지역	2018(평성 30년도) 출제수(출제율)	2017(평성 29년도) 출제수(출제율)	2016(평성 28년도) 출제수(출제율)
유럽, 북아메리카	9(27.3%)	16(48.5%)	10(30.3%)
동아시아	7(21.2%)	6(18.2%)	4(12.1%)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4(12.1%)	4(12.1%)	3(9.1%)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4(12.1%)	3(9.1%)	3(9.1%)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라틴아메리카	4(12.1%)	2(6.1%)	8(24.2%)
복수지역혼재	5(15.2%)	2(6.1%)	5(15.2%)
합계	33(100%)	33(100%)	33(100%)

상기의 <표 3>에서 살펴보듯이 최근 3개년간 세계사 A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은 유럽과 북아메리카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0.3%, 48.5%, 27.3%를 점하고 있다. 그 다음 평균적으로 많이 나오는 지역이 동아시아인데 2016년 4문항, 2017년도에 6문항, 2018년도에 7문항으로 점점 그 비중이 많아지는 것이 특징이다. 다음 <표 4>는 최근 3개년간 세계사 B문항의 지역 분배를 나타낸다.

36) 위의 글, 55쪽.

37) 위의 글, 22쪽. 表(2) 地域別の出題數, 出題率

〈표 4〉 최근 3개년간 세계사 B 센터시험 문항의 지역 분배³⁸⁾

연도, 출제수 지역	2018(평성 30년도) 출제수(출제율)	2017(평성 29년도) 출제수(출제율)	2016(평성 28년도) 출제수(출제율)
서구, 북미	11(30.6%)	8(22.2%)	11(30.6%)
동구, 러시아	3(8.3%)	4(11.1%)	3(8.3%)
동, 내륙아시아	10(27.8%)	5(13.9%)	9(25.0%)
남, 동남아시아	3(8.3%)	4(11.1%)	3(8.3%)
서아시아, 아프리카	3(8.3%)	6(16.7%)	3(8.3%)
중남미, 오세아니아	4(11.1%)	3(8.3%)	3(8.3%)
복수지역혼재	2(5.6%)	6(16.7%)	4(11.1%)
합계	36(100%)	36(100%)	36(100%)

상기의 〈표 4〉에서 살펴보듯이 최근 3개년간 세계사 B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은 세계사 A와 마찬가지로 서구와 북미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0.6%, 22.2%, 30.6%를 점하고 있다. 그 다음 거의 서구, 북미와 비슷한 정도로 많이 나오는 지역이 동, 내륙아시아인데 2016년 9문항, 2017년도에 5문항, 2018년도에 10문항이다.

아래의 〈표 5〉는 세계사 A와 세계사 B 과목의 최근 동아시아사 중 한국사의 비중 분포이다.

〈표 5〉 최근 3개년간 세계사A, 세계사B과목의 동아시아사 답지수 중 한국사 빈도수

연도, 출제수 지역	2018(평성 30년도) 출제수(출제율)		2017(평성 29년도) 출제수		2016(평성 28년도) 답지수	
	동아시아사 총 답지수	한국사 출제수	동아시아사 총 답지수	한국사 출제수	동아시아사 총 답지수	한국사 출제수
세계사A	20(100%)	6(30%)	24(100%)	8(33.3%)	13(100%)	1(7.7%)
세계사B	25(100%)	2(4%)	30(100%)	1(3.3%)	36(100%)	2(5.5%)

38) 위의 글, 26쪽. 表(2) 地域別の出題數, 出題率

세계사 A와 B의 경우 하나의 문항 뿐 아니라 하나의 문항이 아니더라도 4지선다의 답지 중 한 개를 한국사 관련 답지로 제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위의 표에서는 관련된 답지수 중 나타나는 한국사 관련 답지수의 비중을 살펴보았다. 세계사 A와 B의 경우 동아시아사는 주로 중국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 한국사의 비중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세계사 B의 과목이 동아시아사에서 차지하는 한국사 비중이 거의 변하지 않고 소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 반해, 세계사 A의 경우 동아시아사에서 한국사 답지수의 빈도는 2016년 7.7%에서 2017년 33.3%, 2018년 30%로 대폭 상승하였다. 이러한 원인은 세계사 A 과목이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일본과 세계와의 연관이 있는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최근 한국사에 대한 일본의 깊은 관심으로도 볼 수 있다. 2016년 산발적으로 답지에 겨우 나타났던 한국사 관련 문항이 2017년 독립 문항으로 나타나더니 2018년에 이르러서는 다른 7개 문항에 대한 예시 답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2016년도 세계사 A 문항은 다음과 같다.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르 2세는 크림 전쟁에서 패배를 원인으로...(중략)...⑧국민대표에 의한 입법으로의 참가에 길을 여는 개혁초안을 인정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급진적인 혁명가가 황제를 암살하였기 때문에 이 초안은 실현시킬 수 없었다.

문9. 하부선⑧에 관련하여 세계사상의 정치적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서술한 문장으로서 바른 것을 다음 ①~④ 중 하나를 고르시오.

- ① 아테네에서는 기원전 7세기에 직접민주정이 성립했다.
- ② 프랑스에서는 18세기에 국민공회가 소집되었다.
- ③ 영국에서는 19세기에 보수당과 노동당의 2대 정당제가 성립했다.
- ④ 한국에서는 20세기에 박정희가 초대대통령이 되었다.

답은 ②번 답지로 ④번 답지의 내용은 박정희가 초대대통령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답이자, 국민대표에 의한 입법과도 관련이 없으므로 오답이다. 그러나 아테네, 프랑스, 영국 등의 예시 답지와 함께 한국의 정치제도를 사례로 드는 답지 구성과 특히 박정희를 예시로 든 구성은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전국역사교육자협의회가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①번 답지는 비록 오답이기는 하나 근현대사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세계사A에 고대사 출제 답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³⁹⁾

다음 세계사 B 문항에서는 34번 문항 고려 대장경 간행과 라마교의 관련 문제와 16번 문항 이조시기 유학 중 주자학의 중시를 묻는 2가지 답지가 동아시아 문항 중 제시되었다. 두 문항 모두 고려와 조선의 문화, 종교 문항을 묻는 것으로서 정치, 외교적 내용은 묻지 않고 있다. 평가위원회는 16번과 34번 문항은 유교와 불교에 대해 기본적 지식을 묻는 것으로 비교적 쉬운 내용이었다고 하고 있다.⁴⁰⁾

한편 2017년도에는 세계사 A에서 아래와 같이 2개의 독립 문항으로 한국사 문항이 단독 출제되었다.

제2문. 세계와 일본의 연결에 대해 서술한 다음의 문장 A-C를 읽고 아래 질문에 답하시오.

A. 『해동제국기』는 15세기 후반에 조선왕조에서 작성되어 일본, 류큐에 대해 기록한 책이다. 당시 일본 각지의 대명 등 사자가 점차 ①조선반도를 방문하고 조선왕조에서는 이들 사자의 속성과 일본의 정세를 파악하여 둘 필요가 있었다. 여기에서 조선사절의 일원으로서 교토와 ②베이징을 방문한 신숙주에 의해 해동제국기가 편찬되었던 것이다. 이 책은 대마와 노키가 크게 그려져 있는 지도가 수록되어져 있다.(아래 그림: 『해동제국기』에 그려진 일본과 류큐 참조). ③대마에 대한 조선왕조의 관심이

39) 위의 글, 29쪽.

40) 위의 글, 33~34쪽.

높았던 것을 알 수 있다.

문1. 하선부 ①의 역사에 대해 서술된 문장으로서 바른 것을 다음의 ①~④ 중에서 하나 고르시오.(10번 문항)

- ①백제가 조선반도를 통일하였다.
- ②고려에서 훈민정음(한글)이 만들어졌다.
- ③김옥균이 갑신정변을 일으켰다.
- ④이승만을 수상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성립하였다.

문 3. 하선부 ③에 관련하여 일본과 조선반도와의 관계에 대해 서술한 다음의 문장 a와 b의 정오 조합으로서 바른 것을 다음의 ①~④ 중에서 하나 고르시오.(12번 문항)

- a. 강화도 사건을 계기로 일조수호조규가 체결되었다.
- b. 일본은 한국을 병합하고 조선총독부를 두었다.

- ① a-정 b-정
- ② a-정 b-오
- ③ a-오 b-정
- ④ a-오 b-오

문1의 경우 한국 역사의 정치와 문화를 통사적으로 묻는 문제로서 이런 문항이 독립적으로 나오게 된 것이 최근 세계사 문항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문3의 경우도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을 묻고 있어 일본의 강제 침략적 성격을 본질적으로 묻지는 못하고 있으나 근대 한 일관계의 중요한 개항과 강제 병합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문항작성위원회가 밝힌 세계사 A 문항의 구성과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⁴¹⁾

41) 獨立行政法人大學入試センター 試験問題評價委員會(2017. 3), 29쪽. 試験問題の構

대문	설문수	배점	내용
제1문 세계사상의 식민지 형성과 확대 및 그 지배의 모습(27점)			
	A 3문	9점	영국제국의 서훈제도
	B 3문	9점	네델란드의 동남아시아 지배
	C 3문	9점	스페인의 미국 대륙 지배
제2문 세계와 일본의 연결(31점)			
	A 3문	9점	조선왕조에 의한 일본의 정세 파악
	B 4문	12점	에도시대의 일본과 제외국과의 외교
	C 3문	10점	일본인의 열하 조사
제3문 유럽의 크리스티교 세계(21점)			
	A 3문	9점	크리스티교와 정치, 사회와의 관계
	B 4문	12점	유럽 세계에서 이슬람의 인상
제4문 제2차 세계대전이후의 국제관계의 전개(21점)			
	A 3문	9점	유럽의 지역 통합
	B 4문	12점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미합중국의 국제 관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지역의 역사 중에 한국사에 대한 질문을 독립적으로 만들어 높은 배점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세계사 B의 경우에는 폴란드, 중국, 대만, 한국에서의 민주화 정책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답지를 구성하고 오답으로서 ‘한국에서는 박정희에 의해 민주화가 추진되었다.’라고 하고 있다. 2016년 문제와 같이 오답이지만 박정희를 계속해서 소재로 두는 것이 흥미롭다.

가장 최근인 2018년 세계사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자. 세계사 A에서는 독립 문항은 없고, 총 6개의 문항에서 답지로서 나타난다. 답지 예시는 세계의 내셔널리즘을 묻는 가운데 ‘김일성이 남북 수뇌회담을 실현시켰다.(오답)’가 있으며 통치제도에 대해 묻는 가운데 ‘고구려에서 부병제가 실시되었다.(오답)’ 등이 독일의 나치당의 징병제 등과 함께 답지로서 제시되었다. 한편 문화적 영향과 기술의 전파에 대해 묻는 가운데 ‘동학이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았다’(오답)를 답지에 제시하고 있다. 같은 문항의 답지 예로서 제지술, 비잔틴 문화, 간다라 미술 등이 있다. 또 다

成と内容.

른 문항으로는 19세기 미합중국의 대외진출을 묻는 가운데 ‘조선을 개국 시켰다(오답)’를 제시하고 있으며 최현대사로서 정치적 사건이 있었던 도시를 묻는 가운데 ‘평양에서 천안문사건이 일어났다.’(오답)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이 중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으로는 다음 문항이 있다.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서술이기 때문이다.

C. 일찍이 일본에는 ‘외지’라고 하는 행정상의 구분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 외지의 범위에는 대만과 조선반도 등이 포함되어 주로 군인 출신의 일본인 총독을 리더로 한 행정기관이 설치되어져 있었다. 이 같은 통치 ⑨제도가 도입되어지면서 현지의 특성과 사정에 응한 각종의 교육기관이 설치되어 외지 출신의 생도, 학생도 입학하였다. 특히 경성(현 서울)과 타이페이에는 도쿄, 교토, 센다이, 후쿠오카, 삿포로에 연속해서 각각의 제국대학이 설치되어 일본의 지배를 지지하는 인재의 양성도 가능하였다.

문 9. 하선부 ⑨에 대해서 서술한 문장 중에서 바른 것을 다음의 ①~④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오.(문항 19)

- ① 고구려에서 부병제가 실시되었다.
- ② 메소포타미아에서 카스트제도가 성립하였다.
- ③ 싱가포르에서 일국이제도가 도입되었다.
- ④ 독일에서 나치당(나치스)가 징병제를 부활시켰다.

문제작성위원회에서는 근대의 일본에서 식민지(구외지)에서 고등교육의 문제를 제출하여 당해 지역의 역사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물음과 함께 세계사상의 제 제도와 교육기관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본 문항을 작성하였다고 하고 있다. 또한 본 문항은 세계사 학습지도요령에서도 중시하고 있는 일본과 세계와의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였다.⁴²⁾ 이상과 같이 문제 출제의 의도 역시 식민 통치의 억압

성이라든가 교육 기관 설립의 식민지성 등에 대한 언급은 도출되고 있지 않다.

한편 2018학년도 세계사 B에서 한국사 관련 문항은 2개 문항의 2개 답지에서 나타나고 있다. ‘고려에서 골품제가 실시되었다.(오답)’, ‘경주 불국사는 신라시대 건축되었다.(정답)’이 그것인데, 정답으로 한국사 관련 문항이 나타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사 관련 문항은 사회사와 문화사에서 출제되고 있다.

IV. 결론

2005년도 센터시험에서 세계사 A와 세계사 B 문항에 한국사 관련 문항은 보이지 않았다.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지금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출제된 한국사 관련 문항들의 양과 질은 많은 변화를 보였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평가의 내용이 교육과정의 목표, 내용, 교수방법 등에 일관된다고 할 때, 평가 내용의 변화는 일본 역사교육에서 한국사 교육의 목표, 내용, 교수방법 등의 변화를 직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최근 3개년간 일본센터시험에서 역사, 즉 일본사와 세계사 평가에 대한 특징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일본사는 근현대사만을 다루는 A보다 세계적 정세속에서 모든 일본통사를 다루는 일본사 B과목에서 한국사 관련 문항이 양적으로 많았고, 세계사는 반대로 근현대사를 다루는 A가 모든 지역의 세계사를 다루는 B과목보다 양적으로 많이 기출되었다.

42) 위의 글, 38쪽.

둘째, 안중근, 박정희와 같은 인물이 3년에 걸쳐 총 두 번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안중근에 대해서는 ‘한국의 민족운동가’와 같은 표현을 쓰고 있다. 한일 관계사에서 두 인물의 중요도와 저명도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셋째, 최근 독립된 한국사 관련 문항의 등장이나 답지에 옳은 답으로서 비중있게 한국사 관련 사실을 다루는 등 문항의 확대 등 질적인 면에서도 나아지고 있다.

넷째, 한국 관련 문항은 근세사는 교류사, 문화사 중심이 많고, 근현대사로 올수록 정치사, 외교사 문항이 많아진다. 고대사의 교류의 측면에서도 이전에는 중계상인 정도로 제시되었던 것에 반해 도래인의 문화 전달이라는 측면에서 제시되고 있다. 이전에는 세계사라 하더라도 일본과 관련있는 고대사나 근대사를 중심으로 출제되었지만 지금은 통사적으로 한국사 자체 내용이 출제가 되고 있는 것도 특징적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정되어야 할 부분도 많이 있다.

첫째,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처단을 ‘살해하였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 점이다. 역사의 상대주의를 인정하고, ‘민족운동가 안중근’과 같은 표현으로 수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본 학생들이 안중근은 암살자인가하는 의문을 갖게 하는 부분이다.

둘째, 문항이 식민지 통치의 억압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단순 사실을 나열하거나 손기정의 마라톤 승리를 일본 동경 올림픽과 연결하여 시사적 문제로 평가하는 평가위원회의 평가방식 등이 이 문제에서만 큰 아직까지도 상당히 조심스럽다는 것이다.

센터시험은 이제 2020학년도 시험을 마지막으로 폐지되고, 새로운 입학시험 체제로 돌입하는 단계에 서 있다. 앞으로 새로운 교육과정 하에 새롭게 개편되는 역사 교육과정과 새로이 연구되어지는 시험체제 속에서

한일관계의 지평을 여는 보다 질 좋은 한국사 관련 문항들이 개발되고,
그러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일본 학생들에게 제공되
기를 바란다. (日本空間)

논문 투고일 : 2018년 11월 14일

논문 심사일 : 2018년 12월 5일

게재 확정일 : 2018년 12월 20일

참고문헌

〈자료〉

CNN

서울신문 大學入試センター, 「地理歴史(日本史 A, 日本史 B, 世界史 A, 世界史 B)」問項, 平成28(2016).

大學入試センター, 「地理歴史(日本史 A, 日本史 B, 世界史 A, 世界史 B)」問項, 平成29(2017).

大學入試センター, 「地理歴史(日本史 A, 日本史 B, 世界史 A, 世界史 B)」問項, 平成30(2018).

文部科學省, 「高等學校學習指導要領」, 2009.

〈저서〉

정재정 외, 『고등학교 한국사』, 지학사, 2015.

한철호 외, 『고등학교 한국사』, 미래엔, 2015.

〈논문〉

김미란, 「일본의 대학 자율화와 대학입시—도쿄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일본교육학연구』 제13권 2호, 2009.

김보림, 「최근 한국과 일본의 대학입학시험 비교 연구」, 『일본문화연구』 제52권, 2014.

김보림, 「최근 일본 대학입시에서의 역사 평가와 한국사 관련 문항 고찰」, 『일본문화연구』 제24권, 2007.

김용, 「일본 대학입시 개혁과 IB 도입 정책의 동향과 시사점」, 『교육비평』 제41권, 2018.

김용, 엄아름, 「일본 대학입시정책의 변화 동향과 시사점」, 『比較教育研究』 제28권 3호, 2018.

김현경,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화학 문항의 질 제고를 위한 일본 대학입시센터시험 문항 분석」, 『대한화학회지』 제54권 6호, 2010.

백순근, 「한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일본의 대학입시센터시험에 대한 비교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제2권 1호, 2001.

오현석, 「일본 AO입시제도에 관한 소론」, 『한국일본교육학연구』 제17권 1호, 2012.

- 이간용, 「일본의 지리 평가 특성 분석-대학입시센터시험을 중심으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제16권 3호, 2008.
- 이정우, 강대현, 「일본 대학입시센터시험 문항 분석 연구 : 2009년 ‘현대사회’, ‘정치·경제’문항을 중심으로」, 『사회과 교육』 제50권 2집, 2011.
- 최혁준, 「일본 대학입시센터시험 ‘물리 I’ 문항 특성」, 『敎員敎育』 제26권 1호, 2010.
- 高大接續システム改革會議, 「高大接續システム改革會議最終報告」, 平成28年 3月 31日.
- 獨立行政法人大學入試センター 試験問題評價委員會, 「平成28年度大學センター試験 試験問題評價委員會報告書」, 2016. 3.
- 獨立行政法人大學入試センター 試験問題評價委員會, 「平成29年度大學センター試験 試験問題評價委員會報告書」, 2017. 3.
- 獨立行政法人大學入試センター 試験問題評價委員會, 「平成30年度大學センター試験 試験問題評價委員會報告書」, 2018. 3.
- 獨立行政法人大學入試センター, 「平成29事業年度業務実績報告書」, 平成30年6月.
- 獨立行政法人大學入試センター, 「平成30年大學入試センター試験實施結果の概要」, 2018. 2.1,
- 文部科學省, 「高等學校學習指導要領の改定のポイント」, 2018. 3.

〈인터넷 자료〉

- センター試験の仕組み・運営, https://www.dnc.ac.jp/center/shiken_gaiyou/index.html (검색일: 2018. 10. 31)

Abstract

A Study on the Questions of Korean History in the 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s of Japan

Bo-Rim Kim

Since the arrival of the Abe regime, Japan has envisioned a new university entrance system for high school linked University(高大接續改革)

In order to emphasize the need to develop better Korean history questions that open up the horizon of the Korea-Japan relationship in the new examination system, I would like to analyze the questions related to Korean history in the university entrance exam during the recent three years of Japan(2016~2018)

No Korean history related items were submitted in the subject of World History A in the 2005 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 of Japan('Center Test') by National Center for 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s.

However, after analyzing the Center Test at the present time more than 10 years ago, the quantity and quality of Korean history related items have changed a lot. Especially, The subject of World History A have more than 30% of East Asian contents.

It is also improving in terms of qualitative aspects such as expanding of items such as dealing with Korean history related matters as the right answer and the independent Korean history items.

However, in the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it is not possible to

present the repressive nature of colonial rule.

Key words

National Center for 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s, 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s of Japan('Center Test'), Reform for high school linked university (高大接續改革), Questions of Korean History, The subject of World History A